

완도군, 해변공원 족욕체험장 재개장 10월까지 무료 운영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 가능

매주 월요일 휴장...평균 수온 40도 바닷물 순환

완도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중단했던 완도읍 해변공원의 족욕체험장을 재개장한다. 족욕체험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족욕체험장은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통해 완도읍 가용리 해변공원 내 해조 류센터 건물 아래에 조성되었다. 디자인은 동백꽃을 형상화하였으며, 지압

족욕탕과 어린이용 족욕탕,일반 족욕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수온 40도의 바닷물이 순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었으며, 완도의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올려 모래 여과기, 살균 소독기, 바이오 기능성 정수 장치 등 3단계로 거쳐 바닷물을 정화·순환한다. 해수 족욕체험장은 소염과 살균 효과가 있으며 체내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

순환을 도와 머리를 맑게 해 두통과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족욕하는 동안 해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어 저절로 힐링이 된다. 족욕을 체험한 주민은 "다리를 다쳐 통증이 심해 잠을 잘 못 자고 생활이 힘들었으나, 족욕을 했더니 통증이 덜해졌다"면서 만족했다. 군 관계자는 "해변공원을 지나거나 산책 나온 주민과 관광객들이 족욕을 하며 힐링하고 가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무소유'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정식 개관

오후6시까지 운영시간 연장

해남군 우수영에 위치한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이 11일 정식 개관했다.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은 해남군 문내면 출신으로 평생 무소유의 행동을 실천한 2010년 입적한 법정 스님을 기리기 위해 생가터에 조성됐다. 지난 1월4일부터 임시 개관해 운영해 왔으며, 스님의 유품과 사진 등을 전시한 마을도서관과 포토존, 조망대 등이 설치돼 있다. 별도 개관식 없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으며, 1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또한 평일에는 관광실(우수영팀) 직원, 주말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법정스님의 사상과 전서품 설명을 도울 예정이다. 군은 개관을 기념해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을 스텝프래리 코스에 포함시키고, 4월 8~17일 기간 동안 SNS 소문네기를 통한 경



품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법정스님 생가터에 방문하여 법정스님의 말씀과 가르침, 행적을 접하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며 "최근 개장한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스카이 워크와 연계하여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실시

개인당 최대 3천만원 대출·보증 기간 5년 이내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자금난 완화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매년 자금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지원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진도군이 1억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1년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단, 연체 대출금이 있거나 휴업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 방문·접수하면 되며, 매주 목요일 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출장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드문모심기 전용 육묘상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



강진군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드문모심기 전용 육묘상자를 지난해 첫 실증 시험을 거치고 올해 농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문모심기란 상자당 파종량이 250~300g 정도로 육묘해 3.3㎡당 37~50포기 정도로 드물게 모내기함으로써, 육묘상자와 상토 등 농자재를 적게 사용하고 운반 관리 등 노력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10a당 사용하는 육묘상자 수는 6~10장으로, 관행 22~30장에 비해 50~70%를 줄일 수 있으며, 종자를 뿌리는 것부터 모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a당 1.9시간으로 평균 27%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드문모심기는 관행 농법보다 파종량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모를 얻기 위해서는 파종량 및 육묘 일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드문모심기 전용 육묘상자 안에는 전용 이앙기 묘취량에 맞는 작은 칸막이가 있어 뿌리의 과도한 얽힘과 경쟁을 방지하고 모가 균일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 또, 모내기 시 뿌리 끊김을 최소화해 모내기 뒤 원활한 뿌리내림을 촉진한다. 농업기술센터 안준섭 작물연구팀장은 "드문모심기 전용 육묘상자 보급을 통해 드문모심기 재배기술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건전육묘에 앞서주길 바란다"며 전용상자 확대 보급에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새출발 '탐진강 수산연구소' 현판식

장흥군은 11일 탐진강 수산연구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탐진강 수산연구소는 지난 2010년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생태계 복원 연구시설로 문을 열었다. 이후 탐진강을 비롯한 지역 하천에 대한 생물자원 조성 및 토산어종 방류 등의 역할을 맡아왔다. 장흥군은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를 승격시켜 탐진강 수산연구소로 재편하여 이날 현판식을 가졌다. 2020년 장흥군은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 지역 명품 브랜드인 '무삼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김우량종자 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 무삼김 종자원 흥초 1·2·3호의 종자 보전과 사상체 배양으로 우량종자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라남도